**The Problem of Faith(신앙의 문제)**

　인류가 자연을 조종하기 위해 새롭고 더욱 복잡한 방법을 발견해 나가면서 과학의 세계(검증 가능한 지식)와 신앙의 세계(정신적인 개념) 사이에 발생한 분단은 한층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. 후지와라 씨는 무엇이 진실이고 무엇이 진실이 아닌지에 대한 대화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자연에서 생성된 것처럼 보이는 바위와 목발을 조합하여 신앙의 문제에 관한 대립에 대해 탐구하고 있습니다. 이 작품은 자연 환경에 놓인 공허한 콘크리트로 만들어진 바위에 꽂은 보행보조기라는 의도적으로 어울리지 않는 구성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. 목발은 신앙과 종교가 우리에게 제공하는 도움을 암시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. 이 작품 또한 미래에는 신앙의 대상이 될까요?